

민주 “추경 최소 35조...15일 전 처리”

가장 중요한 건 속도 피해인정률 100% 상향 검토 학교에 PCR 검사소 도입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원 규모로 증액해 이달 15일께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운 것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최소한 35조원(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히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14조원의 정부안에서 35조원 규모로 추경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상향도 신속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 “현재 상황으로는 2월말, 3월초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이동형 현장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신속히 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성년자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아 대규모 감염이 우려된다”며 “지역사회에서도 집단적인 유행상자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민생경제가 얼어붙을까 우려되며 추경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안택시 기사 등 200만여명의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랑이의 예리한 시선과 소의 우직한 걸음을 뜻하는 사자성어 ‘호시호보(虎視虎步)’를 언급하며, “올해는 호시호보(虎視虎步)가 더 어울릴 것 같다. 호랑이처럼 날카롭고 날쌔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 연휴 동안 직접 보고 들은 민심의 소리와 민생 현장은 국회가 꾸물거릴 여유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추경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추경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추경안 예비심사가 시작됐다”며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부터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정부가 조만간 거리두기에 대한 방향 설정을 검토하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안에서 거리두기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의료체계의 준비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말까지 17만7000 명까지(확진자) 최대치를 산정한 시뮬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대략 10만~15만까지 갈 수도 있다”며 “2월 한 달은 오미크론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도 더 합리적이고 유연한 코로나 대응으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감당 가능한 시스템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대구 중·남구와 서울 서초구갑 전략 공천

백수범 변호사·이정근 위원장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3일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중 대구 중·남구와 서울 서초구갑 2곳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또 서울 종로, 안성, 청주 상당 등 3곳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 서초구갑은 국민의힘 윤호석 전 의원이 부당산 투기 논란으로, 대구 중·남구는 광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사직하면서 이번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민주당이 두 지역을 전략공천 선거구로 지정한 것은, 두 지역 모두 합지로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백수범 변호사를 영입했으며 당내에서는 백 변호사의 대구 전략공천 가능성이 많이 거론된다. 또 서초구 후보로는 이정근 지역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은 또 송영길 대표가 정치 쇄신 차원에서 무공천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혔던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등 3곳도 무공천을 확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막판 변수’ 대선 토론 4번 할듯 李·尹 양자토론은 ‘불투명’

21일 2차 4자 토론 개최 국힘, 양자토론 제안 검토

여야 4당 대선후보가 3일 오후 처음으로 대선 후보 토론에 나선 가운데 다음 토론회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9 대선에 초반형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TV토론이 막판 변수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중앙선관위가 예고한 법정 TV토론회는 총 3회(2월 21일·2월 25일·3월 2일)다.

각각 경제, 정치,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는 다자토론으로, 여기에는 초청 조건을 만족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등 4명의 후보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 간 합의만 된다면 별도의 토론회는 언제든 열 수 있다. 당장 3일 오후 8시 4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첫 TV토론회도 그러한 성격이다. 이날로 대선후보 간 ‘토론 열전’은 출발 타이프를 끊었지만 예정된 법정토론회 외에 추가로 토론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후보들은 저마다 언제든 토론회에 나설 수 있다고 공언하지만 남은 대선 시간표 상 토론회를 더 추가하기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힘이 실린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법정 토론회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여야 공히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역대 대선을 보면 다들 다수

토론회 개최를 희망했지만, 추가로 성사된 적은 거의 없다. 법정 토론회에 한 번 정도 더 하는 게 최만지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추가로 열 수는 있다”면서도 “다들 더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지지를 양강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재명·윤석열의 양자토론 불씨가 되살아날지도 관심이 있다. 앞서 두 후보 측은 낱말(1월 31일)과 시각(오후 6시), 장소(국회 의원회관)까지 정해놓고도 ‘자료 지참’ 여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공방을 벌여 끝내 맞장토론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양자 TV 토론을 여는 것을 다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전날 “3일 4자 토론이 있고 3~4일 뒤에 후보가 원한다면 저희가 양자 토론을 제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먼저 민주당에 실무 논의 제안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토론회협상단 관계자는 “민주당이 자료 지참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기존에 제안했던 토론 날짜인) 1월 31일에는 자료 없이 하고, 다른 날은 자료를 지참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협상팀에서 (양자토론 논의가) 진행되는 게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애초 합의를 깨고 ‘대장동 자료’를 들고 오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 선화가 없다면 양자 토론 협상은 어렵다고 선을 긋는 상태다.

/연합뉴스

與혁신위, 4선 금지 “철회 뒤 소급 포함 재발의”

“위헌 소지 감수한 혁신 의지” 김동연 양자토론서 “꼼수”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3일 ‘기존 대선 의원을 초선으로 본다’는 취지의 부칙으로 꼼수 지적이 제기된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당선 횟수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추진위원장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부로 (기존) 발의를 철회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소급을 포함한 즉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 재발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한 부칙이 포함돼 ‘꼼수’ 논란이 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선 의원을 초선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칙 내용을 없

에 기존 당선 횟수도 포함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에서 새로운물결의 김동연 후보는 해당 법률 개정안의 부칙을 거론하면서 “최소한 표현이지만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다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호응했다.

장 의원은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위헌 소지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는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개정안 발의시 대선 의원들의 반발과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혁신위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외에도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반환 요건 완화 및 청년 추천보증금 신설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축의금·부급금 수수금지 등 ‘혁신 7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상가매매(상무지구) 신축원룸매매(신축)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용,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

010-6670-9800

부동산매각공고

주식회사 셀테크(이하 '회사') 소유 부동산(이하 해당대상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각을 공고합니다.

- 매각대상 부동산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용신리 1241-5(토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용신리 1241-6(토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용신리 1241-5의 1 및 제1동(건물)

구분	지목	전체 면적(㎡)	매각 면적(㎡)	최저매각가격 (건물VAT 별도)	입찰방법	비고
토지	공청	15,289.4	15,289.4	1,697,123,400	일반	특약사항은
건물	-	5,692.13	5,692.13	2,261,016,000	경쟁입찰	필히
합계				3,958,139,400	확인바람	

(*) 최저매각가격은 2022. 1. 19.자 태평양강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감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에 낙찰함
- 매각부동산 공매일정

입찰참가신청 및 현장설명회	입찰일시	계약체결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2022. 02. 07(월) 13:00까지	2022. 02. 08(화) 10:00	2022. 02. 09(수) 11:00	투찰금액의 10% 이상 입찰참가신청서첨지
- 현장설명회: 2022. 02. 07(월) 13:20	회사 회의실(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용신리 1241-5, 2층)		

- 매각은 삼척회계법인(담당이사 공인회계사 안길진)과 (주)셀테크에서 공동주관함
- 입찰보증금 입금 계좌번호 : 농협, 649-12-153476, 예금주: 안길진

-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 확인서(회사 서식)
 -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본) 및 신분증 사본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 이상) 입금증
- 낙찰자 선정 및 입찰보증금 반환
 -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 최고가 입찰자와 차순위 입찰자를 제외한 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을 즉시 반환함
-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계약체결 시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잔금은 일일까지 납부해야함.
 - 최고가 입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별도 최고가 없이 낙찰 입찰보증금은 회사에서 몰취하고 감정가격 이상 차순위 입찰인과 계약을 체결함
- 특약사항
 -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일을 기준으로 매각부동산을 3년간 매도자에게 임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임대료 보증금 2억원, 월차임료 1,500만원
 - 매수자는 건물지붕 태양광발전소 임대차계약을 사전 숙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여야 함
- 매각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3순위 저당권에 대한 분쟁 및 기타(무담보채권, 우발채권)으로 인해 소유권의 이전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 할 수 있으나 낙찰 즉시 이전을 종료하여야 하며 이전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나 매각주권자가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오니 필히 확인하시어 응찰하시길 바랍
- 입찰참가신청서 및 확인서 교부, 기타 조건이나 상세 문의처:
 - 삼척회계법인 담당이사 안길진 회계사(genie4u@nexasiamdk.kr / 010-3644-1104)
 - (주)셀테크 정희정 전무(010-2654-0433)

2022년 2월 4일
(주)셀테크 대표이사 한동훈
공동주관사 삼척회계법인 담당이사 안길진

"23년 전통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세계 최고 진단전문가를 추구하는 동반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부서 및 자격요건
 - ▶ **공통 자격요건**
 - 학력 : 대졸 이상(4년), 졸업예정자
 - ▶ **모집분야 : 안전진단분야 0명**
 - ▶ **담당업무**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토목, 건축분야)
 - ▶ **지원자격**
 - 신입 · 경력(2~4년) · 기타 필수 사항
 - ▶ **우대사항**
 - 토목기사, 건축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 문서작성 우수자, CAD / CAM 능숙자
- 근무조건
 - ▶ **근무형태** : 정규직 신입(수습기간-3개월)
 - ▶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 **급여** : 당사 보수 규정에 의함
 - ▶ **복리후생** : 4대보험, 경조금, 명절비, 교육·사내동호회지원 등
 - ▶ **근무지역**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소재
- 전형절차
 -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22년 01월 26일(수) 09시~ 채용시 까지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dawoeng@chol.net)
 -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 문의 및 연락처
 - 061-395-2310 / 010-8687-3596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1길 15, 2층

※ 유의사항 ※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DW (주)다우컨설팅
DAWOO Consultants Co., Ltd.